

안동종친회 원로원 창립 및 2022년 송년의 밤 개최



권재주
초대 원로원 의장

안동종친회(회장 권철환) 주최 “안동종친회 원로원(元老院) 창립 및 2022년 안동종친회 송년의 밤”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12월 8일 오후 4시 30분 안동종친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행사에는 권계동, 권재주, 권주연 안동종친회 고문을 비롯하여 원로회원, 권속동 전 안동종친회장, 권기호 재안파종회장전목회장, 권인택 파종회장협의회 고문, 권오국 전 안동향교 전교, 권중근 시중공파종회장, 권순복 정조공파종회장,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영직 24개 읍, 면, 동 지회장 회장, 권재우 읍, 면, 동 총무단 회장, 권오성 능곡회장, 상임위원회, 총무협의회, 정창년회, 부녀회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권광택 도의 회 회원, 권남희 전 안동시의회 의원, 권태영 안동농협조합장 예비후보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한 회장은 권재주 초대 원로원 의장에게 원로원 기(旗)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부의장 등 임원에게도 꽃다발을 전달했다. 원로원 임원으로 선임된 회원은 <의장 권재주 <부의장 권인택. 권중덕 <감사 권영수 <사무국장 권기원이다. 원로원은 안동종친회의 자문기구로서 송조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원로원 회원은 안동종친회 고문, 원로, 80세 이상자의 전임 파종회장과 지회장으로서 본인이 희망하면 회원이 되도록 했다.

권재주 초대 원로원 의장은 인사말에서 “안동 권씨 사성(賜姓)을 받은 지 1천년이 넘고 안동에 거주하는 족친만도 2만여 명이 넘어 터주 대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 안동 발전을 위해 잘하면 권찮은데 잘못하면 다른 성씨로부터 욕을 먹게 되어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면에서 다 잘하자”고 당부했다. 권철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안동종친회에 원로원을 창립한 것은 첫째 후손들이 조상을

잘 모셔야하고 둘째 어른들을 정성을 다하여 모셔야하며 셋째 19세부터 원로 어른까지 함께 모셔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저는 죽음을 다하여 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권철환 회장은 권속동 전 안동종친회장에 4년 5개월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한 명패(名牌)를 하늘색 천에 써서 꽃다발을 함께 전달했다. 권속동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의 퇴임을 아름답게 환송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한 후 “안동종친회를 4년 5개월 동안 맡으면서 죽친끼리 화합하고 단합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으며 쓸데없는 아집과 고집은 내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직 읍, 면, 동 지회장회장은 “안동종친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고 다짐했으며 권재우 읍, 면, 동 총무단 회장은 각 지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며 고마움을 표지했다.

인사말이 끝나자 행사장 옆에 마련된 뷔페식 저탁을 먹으면서 유희시간을 가졌다. 정조공파종회 이경희 서무과장은 무대에 나와서 ‘수덕사의 여승’을 노래하자 앙코르가 쏟아져 ‘추풍령 고개’ 등 다섯 곡을 열창하여 많은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 김이난 초대과수가 ‘동백아가씨’ ‘딜 라일라’ ‘청춘을 돌려다오’ 등 10여 곡을 연달아 노래하고 춤을 추자 족친들도 무대에 나와 함께 춤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송년의 밤을 뜨겁게 달구었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8개들이 떡 1통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고 행사의 막을 내렸다. 보도부장 권영권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30)



중국 춘추시대 제(齊)나라 경공(景公, 재위 BC.547~490)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孔子)가 대답하기를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야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입니다.(君君 臣臣 父父子子)’라고 하였고, 노(魯) 나라 계강자(季康子, ?~BC.468)가 정치에 대해 질문하자, 공자가 ‘정치는 올바른 것(政者正也)’이라고 대답하였다. (“논어” 안연(顔淵) 정명(正名)사상 및 ‘군자(君子)함께 덕(德)의정을 밝히고 실천해야 한다.’(“논어” 이인(里仁))고 강조하였다. 그 수단과 방법 및 목적과 그 결과에 있어서도 올바른 것이다.

이것은 대개 중국의 공자·맹자·한유·유종원·왕안석·정호·주희·육구연·왕수인·황중희·왕부지·고염무 등과 한국의 을파소·왕인·성충·설총·최치원·최충·이색·정몽주·조선조는 호(號)명으로 삼봉·양촌·동고·방촌·매죽헌·매일당·충재·모재·정암·토정·소재·동고이준경·남명·퇴계·내암·율곡·학봉·서애·백사·한음·오리·허균·지천·용주·백헌·미수·백호·서계·성호·순암·보만재·녹암·금대·번암·담원·연암·다산·주사·몽무·성재 등을 비롯한 유교문화권 성현(聖賢)과 철인(哲人), 실학자 등 유학자들의 한결 같은 주장으로 보인다. 유학의 종지(宗旨)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교문화권의 정치적 이상과 지향점 및 그 근거에 대해 이를 이해한다. 그렇지만 과연 과거 왕조시대 유교 정치현실에서 과연 맹자(孟子)가 주장한 ‘민귀군경(民貴君輕)’사상 즉 민(백성, 宗廟)사직(국가) > 군(帝王)(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 “맹자”진심장구(盡心章句)下)으로 된 사상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는가의 의미이다. 오히려 군왕의 절대 권력을 행한 구체적 정치역사는 그 반대의 시간이 긴 것이 아닌가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유교의 민본이란 현대 정치에서 이야기 하는 ‘민주’와 다른 ‘군주’주의의 정치에서 민을 근본으로 삼았는데 불과하라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다.

‘민본론’에서 민본적 정치사상의 근거가 “논어”에서 공자가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낳으신다(天生德於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각자 개개인이 천성(天性)을 지니므로 민심(民心 : 민의民意)은 곧 천심(天心)이며 천명(天命)이므로 이를 반영한 ‘혁명(革命 : 천명의 바뀜)’을 맹자는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이 아닌, 즉 민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정권의 탈취나 정치변혁은 곧 쿠데타(Coup d'État)로 국가 전복으로서 내란 혹은 반란이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민의를 반영한 선거에 의하여 창출된 정권의 정당성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개혁(更張)이 혁명보다 힘들다고 하지만 혁명과 개혁하는 정치가들의 국가관과 정치철학이 과연 공익(公益)을 위한 개혁이고 혁명이냐는 것이다.

서양 근세 절대주의 왕조들에서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서 보이는 ‘신(神 : 하느님) = 왕(國王) = 민(民)’의 정치론의 시대를 지나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근대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사상적 기반은 과연 무엇인가도 함께 의문을 제시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와 정치적 리더십과 개혁하는 정치가들의 정당성을 통해 현실적으로 전통사상에서 확인된다.

내암 정인홍은 인조반정(양정쿠데타 : 광해군 15년 ; 인조 1년 ; 1623년 3월)이란 궁정반란에 의해 역적으로 몰려 참형(斬刑)을 당한 인물로서 289년 후인 대한제국 순종 융희2년(1908.4.30)에야 칙명으로 영의정으로서 원복작(伸冤復爵)이 되었지만, 일찍이 단재 신채호와 그 후 소수의 몇몇 학자 및 관련된 후손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그 행간을 읽어보고 천착 연구하지 않으면서 서·남인의 기준에서 이미 밝혀진 기존 자료를 인용하면서 오히려 객관적 시각과 연구라고 자부하고 있다. 요 근래 20년간 남명학파와 정인홍에 대한 새로운 연구 시각과 태도를 학자들까지도 정인홍을 이른바 ‘廢廟殺弟의 元兇’으로 보고 공개된 국제학술회에서도 그것이 인물평가의 모든 가치기준이 되는 양 주장하는 실정에 있으며 최근에 남명학연구원에서 엮어서 출간된 책에서도 문학과 역사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정치학적 답문을 하면서 동양(한국)철학을 전공한 이들의 글을 ‘천양 일본도’로 평가하거나, ‘그들 또 다른 극단으로 추겨 세우는 시각도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를 재론하여 밝혀야 할 필요성을 통감한다. (다음호에 계속)

2022년 능우회(陵優會) 정기총회, 신임 회장단 선출

안동권씨능우회(陵優會: 회장 권기현) 주최 “2022년도 정기총회”가 12월 13일 저녁 6시 30분 안동시 안기천로 ‘이조식당’에서 회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권오갑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 묘소 망배, 회장 인사, 경과보고 및 감사 보고, 2023년 신임 회장단 선출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기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저녁 눈비가 내리는 가운데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내년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오갑 사무국장은 올 한 해 동안 능우회에서 일어났던 각종 행사 11건의 경과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했으며 권수환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지난 7월까지 능곡회원으로 있다가 나이가 만 65세가 되어 능우회에 입회하기로 결정되었던 권오을 전 국회의사무총장이 유고와 있어서 입회를 미루어 오다가 이날 참석, 정식으로 입회하였으며 “앞으로 열심히 능우회에 참석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2023년도 신임 회장단 선출에서 <회장 권오익(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부회장 권오직 <감사 권기현(현 능우회 회장) <사무국장은 능우회장이 차후 지명하기로 했다. 권오익 회장은 인사말에서 “역대 전임 회장들이 일을 잘 처리했는데 저는 잘못할까봐 걱정이 된다”며 “앞으로 임기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총회를 마친 회원들은 불고기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정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권

謹賀新年

顧問：權啓東(僕射公派), 權奇德(僕射公派), 權仁塔(正朝公派), 權奇浩(僕射公派)

會長 權宙衍(副戶長公派宗會 會長)

副會長 權五敦(樞密公派宗會 會長)

監事 權榮澤(前 正朝公派宗會 會長)

事務局長 權奇胤(副戶長公派宗會 副會長)

會長團

宗派宗會 會長 權五昌

副戶長公派宗會 會長 權宙衍

樞密公派宗會 會長 權五敦

僕射公派宗會 會長 權世穆

同正公派宗會 會長 權五秀

佐尹公派宗會 會長 權伍信

別將公派宗會 會長 權奇秀

副正公派宗會 會長 權五瑋

侍中公派宗會 會長 權重根

給事中公派宗會 會長 權旭炯

中允公派宗會 會長 權寧鐸

軍器監公派宗會 會長 權奇洪

正朝公派宗會 會長 權純福

戶長公派宗會 會長 權丙燾

檢校公派宗會 會長 權正澤

새해 元旦 安東權氏派宗會長協議會 會長 權宙衍



2023년 새해!

100만 족친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파종회장협의회는 안동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